

<2021년 9월 8일 수요말씀>

영적이고 신령한 자

본 문 [시대 성경]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형제들을 사랑하여라.

이같이 사는 자는 영적인 자요, 신령한 자니라.

이는 하나님의 최고의 말씀을 실천했기 때문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40절]

- 사람이 살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최고의 법〉은
꼭 알아야 됩니다.
- 〈하나님과 성령님의 최고의 법〉은 ‘참사랑’ 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성령님을 참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 목적을 이루는 절대적인 삶’ 이기 때문입니
다.

- 예수님은 일생 동안

〈하나님이 최고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최고의 법〉을
몸소 행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가셨습니다.

세상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실천하시고, 본을 보이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행하심대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예수님은 일생 동안

사람들을 그리도 사랑해 주고, 위해 주며 사셨습니다.

이 같은 삶은 〈예수님 당세〉뿐만 아니라
〈새 시대 섭리역사〉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사명자’를 보내서 예수님같이 행하게 하시
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를 사랑하고,
그와 같이 형제들을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 〈신약역사〉도, 〈성약역사〉도 같은 하나님의 역사이니,

이 시대도 하나님이 ‘시대 사명자’를 통해 외치게 하고 계십니
다.

역사는 동시성이고,

성령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은 모두 하나 되어 이루시니,

하나님이 친히 행하심이 분명합니다.

- 하나님과 성령님은

‘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삼위를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 하나님과 성령님은 말씀하시기를,

“삼위는 인간을 99% 지켜주고, 도우며
인간을 위해 과거도 현재도 살아 주고 있다.

전능자 삼위일체가 그같이 돕고 함께 행하지 않으면,
사람은 약하고 무지해서 매일 자기 생명을 잘 지키고 관리하여
생명을 제대로 살리며 살 수 없다.

그동안 삼위가 천사들을 배치하여 돕고, 생명 관리를 해 주고,
수천 번, 수만 번 돕고 함께해서 지금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삼위일체께 마음도 몸도 혼도 영도 드리고 사는 것이
너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를 깨닫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삼위를 사랑하며 살아라.” 하셨습니다.

- 지난날을 보면, 누구든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저마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생각하며,
지난날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 사람이 <약할 때>는

‘마음’ 도 ‘생각’ 도 ‘육’ 도 ‘혼’ 도 실가닥같이 약합니다.

그때는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 주도 꼭 잡아 주시고,
천사들도 꼭 잡아 줍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육신의 생명’ 도 끊어지고,
‘영의 생명’ 도 끊어졌습니다.

- 과거에 수백 번씩 지켜 주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께
‘깊은 기도’ 를 해야 됩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게 되었음>에 감사해야 되고,
<구원받고 휴거를 이루고 살고 있음>에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의 심정을 몰랐던 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온전히 기도하고 해결해야 됩니다.

- <하나님과 성령님이 돕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주관으로 육적으로 생각하니,
감사하지 못하게 되고 불평불만만 하게 됩니다.

-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는 항상 태양같이 행해 주시지만,
저마다 자기가 삼위와 주를 찾고, 믿고, 행해야만
삼위와 주가 자기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됩니다.

- <사탄>은 항상 ‘자기 위치’를 모르고,
‘소외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탄의 주관>을 받으면 ‘소외감’을 갖고,
‘서운함’을 타게 됩니다.

-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 앞>에는
절대 ‘소외감’이나 ‘서운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각자의 때가 있어, 하나님은 다 해 주십니다.

자기가 행한 대로는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다 갚아 주십니다.

-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와 ‘형제들’을 사랑하고 살면,
전능자 하나님은 저마다 자기가 행한 대로 꼭 갚아 주십니다.

- <마음이 약하고 흔들릴 때>는

절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를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변함없이 사랑하고,

‘형제들’도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사랑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 사람은 <마음>도 <육신>도 실가닥같이 약합니다.

그렇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일체 되어
‘삼위의 대상’ 이 되면, 강합니다.

<육>도 <혼>도 <영>도 전능자 하나님과 일체 되어야,
강하고 영원합니다.

- <절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행하고 봐야 됩니다.
- <하나님과 성령님이 함께해 주신 것>이 그리도 큼니다.

진정 <기도>해야, 하나님도 성령님도 함께해 주십니다.

- <힘든 어려움과 고통>을 ‘옴’ 과 같이 이겨야,
그 후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 지금까지 섭리사를 오면서,
모두 저마다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참고 이겨야, 성경에 이긴 자들이 축복을 받듯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을 받게 됩니다.

- 성령님은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변하지 말고, 어려움을 이겨라.

온전히 기도하면, 하나님도 나 성령도 문제를 해결해 준다.

저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기도’ 도 하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와 형제들을 사랑’ 해야,
자기 문제가 해결된다.

이를 위해 개인 한 명, 한 명 모두
전심으로 기도하여라.” 하셨습니다.

- 구원받고 휴거됐으니,
꼭 <구원>과 <휴거>를 상실하지 말고,
진정 기도하며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 <부활된 삶>을 살아야 부활된 것입니다.

- 지금은 <기도>하며 깨닫고 배워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에 대해 배워야 됩니다.

안 배우면, 지나가고 ‘무(無)’로 끝납니다.

안 배우면, 하나님과 성령님이 자기와 함께하셔도 모릅니다.

- <기도 시간>은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털어 놓고 실컷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면,

곤고하고, 무미하고, 갈 길을 잃고, 괴로워합니다.

- <좋은 날>이 오니, 꼭 진정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합당한 것’은 행해 주십니다.

-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형제도 오해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다 깨우쳐 주시고, 풀어 주십니다.

- 금주도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잊지 말고 행해야 됩니다.

- <의로우신 하나님>은 ‘불의’를 대적하십니다.

항상 <의의 편>에 서서 살아야 됩니다.

불의를 행하면, 하나님과 성령님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와 형제들을 사랑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